

기질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ffects of Temperament and Mother's Disciplinary Styles on the Behavior Self-regulation Ability of Young Children

Hyuk-Jun Moo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요약 본 연구는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내적 변인인 기질과 어머니 변인인 훈육방식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만 5세 유아의 어머니 500명이며,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이검증,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질 중 외향성과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감정반응형이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ir mother's disciplinary styles on the ability to self-regulate their behavior.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mothers of 500 kindergarten children in S and I city, Korea. The study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the mothe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bility to self-regulate behavior varied with the gender. Girls showed a higher ability to self-regulate their behavior. Second, among the mother's disciplinary styles, emotional response was found to be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ability to self-regulate behavior, followed by the child's extrovert temperament.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the mother's disciplinary practice is a very important factor to promote the ability to self-regulate behavior among young children. Therefore, there is a strong need for programs to address such issues.

Keywords : Temperament, Disciplinary, Behavior Self-regulation Ability, Young Children, Mother

1. 서론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행

동이나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즉각적인 욕구와 충동을 제어하면서 주변 환경의 요구에 맞게 자신을 적절히 조절하는 자기조절능력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린 시기부터 꾸준히 발달시켜야

본 연구는 2020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Corresponding Author : Hyuk-Jun Moon(Catholic Univ.)

email: mhyukj@catholic.ac.kr

Received April 11, 2022

Accepted July 7, 2022

Revised June 3, 2022

Published July 31, 2022

하는 주요 과업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1].

자기조절능력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다면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기능과 상태를 스스로 통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2],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정서적 각성을 금지, 유지, 증진, 조율하는 능력인 정서적 자기조절과 행동적 표현과 순응, 충동통제, 만족지연, 유혹저항 등 자기통제에 속하는 초기행동들이 발달되어 내면화된 전략을 사용하면서 행동하는 행동적 자기조절로 구분하고 있다[3]. 특히, 자기조절능력은 만 4, 5세경 대부분의 발달이 이루어지며[4], 어느 시기보다 유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개인 위생, 식사 예절, 타인 존중 등에 대한 부모의 명령이나 지시에 대한 순응행동인 행동적 자기조절능력[5] 습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기조절능력은 전 생애에 걸쳐서 상당히 안정적인 경향이 있으며[6],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유아는 신중하고, 주의집중력이 높고, 분별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반면, 자기조절능력의 결핍을 보이는 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표출되고, 과잉행동, 낮은 주의집중력을 보이며, 이후 반사회적 행동과 낮은 학업성취, 청소년기 행동장애 등[7,8]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유아기는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기로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보다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탈중심화 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9].

자기조절능력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설명해 주는 주요 변인은 크게 개인적 특성의 변인과 환경적 특성의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의 변인으로 먼저 성차가 있다. 대부분의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구[10]에서는 여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11]. 성차 다음으로 기질을 꼽을 수 있다. 즉, 순한 기질을 가진 유아의 경우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나타내는 반면, 활동성이 높은 까다로운 기질의 경우 자기조절능력이 낮다는 결과[12]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자기조절능력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학습되는 능력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부모의 훈육방식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부모의 훈육방식은 안정적으로 지속, 유지, 반복되면서 심지어 강화되는 특성이 있으며, 자기조절능력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13,14]. 종합하면,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유아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끌어 내는 반면, 까다로운 기질의 대표적 특성인 부정적 정서성 등은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가져오며,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15,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내면적 정서 상태를 어떻게 조율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은 외현적인 행동을 어떻게 조율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유아의 개별적 특성인 기질 그리고 어머니의 훈육방식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행동적 자기행동조절능력에 관련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행동적 자기행동조절 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기질,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기질,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S와 I시에 위치한 10개 유치원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만 5세 자녀의 부모 중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든 참여자는 자발적 동의에 의해 모집되었다. 배포한 설문지 600부 중 520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20부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유아의 성별에 있어서는 남아가 263명(52.6%), 여아가 237명(47.4%)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84.6%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Summary of participant demographic (N=500)

		N	%
Child's Gender	Boy	263	52.6
	Girl	237	47.4
Mother's Age	20-29	23	4.6
	30-39	423	84.6
	40-49	54	10.8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98	19.6
	College Graduate	171	34.2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231	46.2
Mother's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225	45.5
	Unemployment	275	55.0

2.2 연구도구

2.2.1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Gralinski와 Kopp[5], Kalpidou[17]의 도구를 Chung[18]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4점)'로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행동적 조절능력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이었다.

2.2.2 기질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Rothbart[19]의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Short Form(CBQ)을 토대로 Kim[20]이 축약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은 외향성(12문항), 부정적 정서(12문항), 의도적 통제(12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인 외향성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활동수준과 외부자극에 대한 유아의 반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 정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 상태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도적 통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집중과 통제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외향성 .75, 부정적 정서 .70, 의도적 통제 .74이었다.

2.2.3 어머니의 훈육방식

어머니의 훈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Choi[21]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은 합리적 반응형(9문항), 감정적 반응형(10문항), 과대허용적 반응형(8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리적 반응형은 온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의 행동에 대해 발달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는 훈육방식이며, 감정적 반응형은 문제행동 상황에서 감정적이고 강압적으로 대응하며 자녀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수치심을 주거나 자녀의 행동 수정을 위하여 협박, 벌이나 체벌 등을 사용하는 훈육방식이다. 과대허용적 반응형은 자녀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부모로서의 권위와 양육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녀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며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는 훈육방식이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훈육방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합리적 반응형 .80, 감정적 반응형 .82, 과대허용적 반응형 .76이었다.

2.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기질, 어머니의 훈육방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할 도구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기질, 어머니의 훈육방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기질,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아의 성별에 따른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t=2.92, p<.001$)의 경우 여아($M=3.45, SD=.69$)가 남아($M=2.21, SD=.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남아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Table 2. Differences in behavior self-regulation ability by child's gender (N=500)

Variable	Boy (n=263)	Girl (n=237)	t
	M(SD)	M(SD)	
Behavior Self-regulation ability	2.21(.76)	3.45(.69)	2.92***

***p<.001

3.2 기질, 어머니의 훈육방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

기질, 어머니의 훈육방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기질 중 외향성($r=-.23, p<.001$), 부정적 정서($r=-.13, p<.05$)는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부적 상관관계를, 의도적 통제($r=.13, p<.05$)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합리적 반응형($r=.19, p<.01$)은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정적 상관관계가, 감정적 반응형($r=-.18,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기질이 외향성과 부정적 정서가 강할수록,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형일수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낮음을 의미하며, 기질이 의도적 통제가 강할수록,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합리적 반응형일수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Table 3. Correlation of child's temperament, maternal disciplinary styles, and behavior self-regulation ability (N=500)

Variable	1	2	3	4	5	6
1. extroversion	1					
2. Negative Emotion	.19*	1				
3. Intentional Control	-.17*	-.16*	1			
4. Rational Response	-.11	-.10	.13	1		
5. Emotional Response	.01	.06	-.04	-.11	1	
6. Overly Permissive Response	.08	.03	-.09	.10	-.17*	1
7. Behavior Self-regulation ability	-.23***	-.13*	.13*	.19**	-.36***	-.18**

*p<.05, **p<.01, ***p<.001

3.3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가중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 계수를 살펴본 결과 VIF는 10 이하(1.00~6.90), TOL은 0.1 이상(.06~.99)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4에 의하면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서 설명력은 21%로 나타났다($F = 13.01, p < .001$), 기질 중 외향성($\beta = -.20, p < .001$),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감정적 반응형($\beta = -.22, p < .001$)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질 중 외향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감정적 반응형일수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 Influences of child's temperament, maternal disciplinary styles, and behavior self-regulation ability (N=500)

		Behavior Self-control Ability	
		B	β
Temperament	Extroversion	-.34	-.20***
	Negative Emotion	.06	.04
	Intentional Control	.25	.12
	Rational Response	.34	.12
Disciplinary Style	Emotional Response	-.55	-.22***
	Overly Permissive Response	.30	.11
F		13.01***	
R ²		.21	
ΔR^2		.20	

***p<.001

4. 논의 및 결론

기질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외적 통제에 순응을 잘하고 충동을 억제하거나 좀 더 나은 보상을 위해 행동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동적 통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1,22]에서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점검하여 충동을

억제하고 규칙을 지키며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 자기통제력이 높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서 성별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성차에 따른 정서사회화 과정의 차이로 보는 견해가 많다[23].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가정 내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기질과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에서 기질 중 외향성과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의도적 통제가 낮을수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질에 따라서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는 충동이나 행동을 억제하고 규칙을 지키는 등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향성이 높은 유아는 외부 자극에 대한 유아의 접근, 선호 및 정서적 반응과 활동수준이 활발한 특성을 나타내므로[24] 유아가 분노유발 및 공격적 상황 등 난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정서적 상태의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행동적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 개인별 기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에 따른 접근의 모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서 훈육방식 중 합리적 반응형은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정적 관계가 있었고,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형은 부적 관계가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 중 합리적 지도[25], 민주, 자율적 양육행동이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26], 부모가 따스하고 합리적인 설명과 경험 공유 및 참여, 긍정적인 관심과 평가 등의 양육행동을 통해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지는[27] 결과들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아버지가 지나치게 통제하기 보다는 애정적 태도를 취할수록 유아는 자기정서를 잘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결과[28]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격려하는 부모의 훈육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기질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먼저 기질 중 외향성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 자극에 대한 유아의 접근, 선호 및 정서적 반응과 활동수준이 활발한 외향성이 높은 유아는 외적 통제에 순

응하고 행동을 지연시키기 등 행동의 통제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24]. 따라서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유아를 지도할 때 유아의 기질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기질 특성에 적합한 활동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감정적 반응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감정적인 반응이 유아 스스로 조절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발달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언어적 공격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감정적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훈육이 효과를 가져 올 수 없으며 수용되는 행동에 대한 한계를 부모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자기조절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29,30]. 특히, 감정적 반응의 훈육방식은 유아가 감정조절, 대인관계의 기술, 행동의 경계와 그에 따른 결과를 배우지 못하는 등의 사회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31,32]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부지역에 위치한 유치원에 재원중인 어머니를 임의 표집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부모의 양육방식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후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과 계층으로 표집의 규모를 확대하여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기질과 어머니의 훈육방식,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은 어머니 평가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당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에 의한 평가뿐만 아니라 교사에 의한 평가 그리고 유아 관찰 및 면접 등을 병행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매개작용, 조절작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보다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봄에 있어 연구주제에 따른 변인이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References

- [1] M. B. Bronson, "Recognizing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Vol.55, No.2, pp.32-37, 2000.
- [2] K. D. Vohs, R. F. Baumeister, "Understanding self-regulation: An introduction", *Handbook of Self-regulation*, Vol.19, pp.3-10, 2004.
- [3] L. A. McCabe, M. Cunnington, J. Brooks-Gunn,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young childr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ontexts. In R. F. Baumeister, K. D. Vohs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The Guilford Press, 2004, pp.340-356.
- [4] K. S. Rose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the emerging self*, Palgrave Macmillan, London, 2016, pp.27-28.
- [5] J. H. Gralinski, C. B. Kopp, "Everyday rules for behavior: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9, No.3, pp.573-584, 1993.
- [6] E. Wulfert, J. A. Block, E. Santa Ana, M. L. Rodriguez, M. Colman, "Delay of gratification: Impulsive choices and problem behaviors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Vol.70, No.4, pp.533-552, 2002.
- [7] J. H. Park, H. N. Song,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improving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gnitive regul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5, No.2, pp.49-72, 2010.
DOI: <https://doi.org/10.16978/ecec.2010.5.2.003>
- [8] R. Moilanen, "Diagnosing and measuring learning organizations", *The Learning Organization*, Vol.12, No.1, pp.71-89, 2005.
DOI: <http://dx.doi.org/10.1108/09696470510574278>
- [9] H. M. Wellman, D. Cross, J. Watson, "Meta-analysis of theory-of-mind development: The truth about false belief", *Child Development*, Vol.72, NO.3, pp.655-684, 2001.
- [10] G. Kochanska, K. C. Coy, K. T. Murray,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the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Vol.72, No.4, pp.1091-1111, 2001.
DOI: <http://dx.doi.org/10.1111/1467-8624.00336>
- [11] G. S. Kang, K. N. Lee, "Children's self-control: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and children's refle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2, No.4, pp.115-132, 2001.
- [12] H. S. Park,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ir his/her mothers parenting methods, and children's behavioral self-regulation*, Ph.D.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pp.87-89, 2002.
- [13] D. Grewal, P. Salovey, "Feeling smart: The sci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merican Scientist*, Vol.93, NO.4, pp.330-339, 2005.
Available From: <https://www.istor.org/stable/27858608>
- [14] P. D. Hastings, K. H. Rubin, L. DeRose, "Links among gender, inhibition, and parental socialization in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Vol.51, NO.4, pp.467-493, 2005.
DOI: <http://dx.doi.org/10.1353/mpq.2005.0023>
- [15] H. J. Kim,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Children's Temperament, Emotional Regulation, and Aggression on Peer Competence*,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Chungbuk, Korea, pp.91-93, 2008.
- [16] J. A. Ohm,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Impulsivity, Sociodramatic Play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5, NO.5, pp.41-58, 2004.
- [17] M. D. Kalpidou, *The development of behavioral and emotional self-regulation during the preschool period*. Ph.D dissertation, The Louisiana State University, USA, pp.65-67, 1998.
- [18] E. J. Chung, *A study on variables affecting behavioral/emotional self-regulation of children*, Ph.D. dissertation, Seoul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73-74, 2005.
- [19] M. K. Rothbart,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University of Oregon, USA, 1996, pp.123-124.
- [20] J. M. Kim,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in different situations: Related to executive function and temperament*,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64-65, 2013.
- [21] Y. H. Choi,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s' discipline style scale for young children*, Ph.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pp.102-103, 2020.
- [22] M. Y. Sung, "Original article: Effects of behavioral and emotional regulation on preschool children's peer play behavior: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52, No.5, pp.541-549, 2014.
DOI: <http://dx.doi.org/10.6115/fer.2014.046>
- [23] A. K Root, S. A. Denham, "The role of gender in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Key concepts and critical issue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Vol.128, pp.1-9, 2010.
DOI: <http://dx.doi.org/10.1002/cd.265>
- [24] H. J. Jung, *Behavior problem according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self-regulation*, Ph.D.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pp.82-85, 2009.
- [25] S. J. Kw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and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pp.57-58, 2005.
- [26] M. K. An, *The relationship children's temperament*

- and self-regulation ability, mother's parenting behaviors,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24-35, 1996.
- [27] N. H. Oh, *The effects of the paternal and the maternal rearing behavior on children's ability to control emotion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75-78, 2008.
- [28] I. S. Park, E. Y. Nahm, "Relations among coparenting,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toddler's emotion regul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8, No.4, pp.135-153, 2015.
- [29] R. Feldman, P. S. Klein, "Toddlers' self-regulated compliance to mothers, caregivers, and fathers: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social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9, No.4, pp.680-692, 2003.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39.4.680>
- [30] A. T. Vazsonyi, L. Huang, "Where self-control comes from: On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and its relationship to deviance over tim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6, No.1, pp.245-257, 2010.
DOI: <http://dx.doi.org/10.1037/a0016538>
- [31] M. L. Gunnoe,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style, physical discipline, and adjustment in adolescents' reports", *Psychological Reports: Disability & Trauma*, Vol.112, No.3, pp.933-975, 2013.
DOI: <http://dx.doi.org/10.2466/15.10.49.PR0.112.3.933-975>
- [32] R. Saunders, L. McFarlane-Piazza, D. Jacobvitz, N. Huzen-Swann, R. Burton, "Maternal knowledge and behaviors regarding discipline: The effectiveness of a hands-on education program in positive guidanc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2, No.3, pp.322-334, 2012.
DOI: <http://dx.doi.org/10.1007/s10826-012-9581-5>

문 혁 준(Hyuk-Jun Moon)

[정회원]



- 1997년 5월 : Michigan State University Ph. D.
- 1999년 9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발달, 부모-자녀관계, 보육정책